한국사회복지학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61, No. 1, 2009. 2, pp. 293-322.

알코올 중독문제를 가진 재혼한 부인에 대한 가족치료사례 연구*

박 태 영 +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 태 한 ++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김 혜 선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요 약]

본 연구는 알코올 중독의 문제를 가진 재혼한 부인에 대한 가족치료사례 연구로써 부인의 알코올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보기 보다는 재혼한 가족체계 안에서 발생하는 역기능적 상호작용의 문제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부인의 음주행동에 대한 촉발요인으로써 가족의 반응, 촉발요인에 대한 대항요인으로써 부인의 음주행동, 가족의 관계수준에 따른 관계요인으로써 부인의 피해의식, 부인의 음주행동이 가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재혼가족의 특수성으로써 재혼가족의 결합을 어렵게 하는 암묵적 상호작용과 가족결합을 강화시키려는 통제적 상호작용을 발견하였다. 또한 가족치료적 개입관점은 부부하위체계의 강화, 의사소통의 변화추구, 가족규칙의 완화, 차이점의 수용이었으며, 치료의 결과는 부인의 변화, 남편의 변화, 가족의 변화로 나타났다.

주제어: 가족갈등, 가족치료, 알코올중독, 의사소통, 질적연구, 재혼가족

* 본 연구는 숭실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주저자
++ 교신저자

1. 서 론

한국의 이혼율은 OECD국가 중에서 최상위권에 속하고, 높은 이혼율과 더불어 재혼율도 증가하고 있다. 2006년도의 경우, 재혼은 전체 결혼의 약 20%를 차지하며, 초혼 대비 이혼 후 재혼의 비율은 16.3%를 차지하였다. 또한 미성년 자녀를 동반하고 재혼한 경우가 재혼가족의 약 70%나 되었다(통계청, 2007). 이와 같이 이혼과정을 거쳐서 재혼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회적 변화와 맞물려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2월 6일 울산에서 6세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하고, 증거인멸을 위하여 드럼통에 휘발유를 부어 불태우고 태연히 거짓 인터뷰를 하는 계모 오모(30)씨의 사건은 위선적인 모습과 함께 잔혹성으로 전국을 경악시켰다. 이 사건의 가해자가 재혼모였다는 사실로 인해서 재혼모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은 강화되었고, 재혼가족의 통합과 적응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새삼스럽게 생각하게 만들었다(경향신문 2008).

재혼가족의 통합과 적응이 갖는 어려움은 또다시 재해체(이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국내에는 체계적인 조사연구가 실시된 적이 없어서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지만, 한국가정법률상담소(2007)에 따르면, 재혼가족의 이혼상담은 2002년 13.3%, 2004년 14.7%, 2006년 15%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의 경우에도 초혼부부의 이혼율이 40%대이지만, 재혼부부의 이혼율은 70%에 이르고, 삼혼부부의 이혼율은 80-90%까지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다(Furstenberg and Spanier, 1984, 김효순・엄명용, 2007에서 재인용). 이러한 결과들은 초혼가족보다 재혼가족의 통합과정이 더 어렵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1980년대부터 재혼가족에 대한 학술적 관심이 증가하였다. 이는 미국사회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재혼이 증가하고, 재혼가족의 형성에서 겪는 어려움들이 사회 및 학술적 이슈가 되었기 때문이다(Ganong and Coleman, 1994).

재혼가족의 통합과정의 어려움은 초혼가족과 재혼가족이 다르게 발달한다는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모든 가족은 개인의 발달과 마찬가지로 집합체로서 가족의 고유한 발달과정 즉, 가족생활주기를 가지고 있고, 각 발달단계마다 성취해야만 하는 특정의 과업들이 있다. 특히 가족치료에서는 가족생활주기의 각 단계마다 해당과업을 성취하지 못하면 적응의 어려움을 가지고, 가족문제가 발생한다고 본다(Carter and McGoldrick, 1989). 재혼가족의 경우, 기존에 연구된 초혼 및 중산층 가족과 여러 면에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Visher and Visher, 1991; Cherlin and Furstenburg, 1994; Coleman, Ganong and Fine, 2002). 또한 재혼자들 역시 구혼기간이 짧거나 별다른 준비없이 재혼을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anna and Knaub, 1984; Ganong and Coleman, 1989).

미국과 서구사회를 배경으로 진행된 재혼가족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한국사회에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한국사회가 유교적 이념으로 재혼을 금지한 조선시대 500년간의 영향력을 직간접적으로 받고 있고, 가족구성원의 혈통을 중시하는 순혈주의와 가족응집력에 대한 강조, 재

혼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여전히 지배적인 문화적 차이 때문이다. 비혈연의 자녀가 있는 재혼가족의 경우는 비혈연자녀-부모 관계뿐만 아니라, 재혼부부관계도 사회문화적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러 재혼가족의 유형 중에서 가장 복잡한 관계적 특성을 가진다(김효순・엄명용, 2007). 재혼가족에서 재혼모(부인)가 받는 스트레스는 다른 구성원들이 받는 스트레스보다 크다. 이것은 가족 안에서 엄마로써의 역할비중이 크게 요구되면서 동시에 계모라는 부정적 인식이 강하게 작용하여 가족통합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재혼모의 스트레스는 초혼모보다 크며, 재혼부보다 크다는 사실로도 알 수 있다(임춘희, 1996; Demo and Acock, 1996; 임춘희・정옥분, 1997; 김연옥, 2002).

우리나라는 사회적으로 재혼가족이 증가하고 있으며, 재혼가족의 독특한 발달과정과 통합의 어려움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재혼가족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재혼가족이 경험하는 가족갈등에 대한 치료적 개입의 경험적 연구가 부족하다. 따라서 본 사례연구에서는 가족치료과정에서 드러나는 재혼가족의 갈등과 상호작용을 가족치료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재혼가족의 갈등에 개입하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치료와 분석의 이론적 틀

MRI(Mental Research Institute)의 단기치료, Haley와 Madanes의 전략적 치료, Milan모델은 모두 의사소통이론에서 출발하였고, Palo Alto의 MRI에서 나왔다(Nichols and Schwartz, 2008). 협의적으로는 Haley와 Madanes의 모델을 전략적 치료라고 지칭하고, 광의적 개념으로는 이 3가지 모델을 모두 전략적 치료로 분류하기도 한다(Nichols and Schwartz, 2008; Goldenberg and Goldenberg, 2001).

MRI의 Watzlawick과 Beavin 그리고 Jackson(1967)은 대화에서 개인이 갖는 함의를 설명하는 공리들을 연구하였다. 첫째는 모든 행동은 의사소통이고 모든 사람은 항상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모든 메시지가 보고와 명령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명령의 기능은 관계에 대한 측면이며, 암시적인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즉 모든 사람은 의사소통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그것은 관계의 역할을 설정한다.

Madanes(1981)는 부부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권력의 공유문제와 배우자 간에 통제와 책임의 영역을 나누는 위계의 문제로 발생한다고 보았다. 이 권력은 상대방을 지배하는 가능성뿐만 아니라 배우자를 위로하고, 변화시키고, 돌보고, 책임을 져주는 가능성까지도 포함한다. 부부는 관계에서 권력의 균형을 유지시키는 방법으로 증상을 선택하며, 이러한 증상으로는 우울증, 알코올중독, 공포, 불안 및 심리신체적 증상들이 있다. 따라서 증상을 가진 배우자가 있는 결혼생활은 부부간의 위계의 부조화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증상을 가진 배우자는 자신을 돕고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상대배우자보다 열등한 위치에 있다. 그러나 증상을 가진 배우자는 상대배우자의 도움을 받아들이지 않는

다는 점에서 우월한 위치에 놓이게 한다. 증상을 가진 배우자는 상대배우자에게 조언과 도움을 요청하면서도 한편으로 거부한다. 그럼으로 부부 사이에는 두 가지의 부조화스런 위계가 형성된다. 하나의 위계는 문제를 가진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열등한 위치에 있고, 증상이 없는 배우자는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우월한 위계를 가지고 있다. 또다른 위계는 증상을 가진 배우자는 영향을 받거나 도움을 받으려 하지 않을 것이고, 이것은 증상없는 배우자가 도움을 주거나 영향을 주는데 실패하게 만듦으로써 증상있는 배우자가 위계상 우월한 위치에 놓이게 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증상을 가진 배우자는 증상을 이용해서 증상을 가지지 않은 배우자를 조정할 수 있다. 그리하여 부부는 서로의 약점과 권력을 규정짓는 상호작용에서 벗어나지 못 하는 것이다. 열등한 위치에 있으면서 동시에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개념은 매우 중요한데, 배우자들은 상호작용에서 서로 번갈아가면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권력의 배분이 잘되면 부부는 생활에서 만족스럽고, 적절한 배분을 하지 못할 때에 한 사람은 불만스러울 수 있는데, 이때에 증상적 행위가 나타난다. 증상적 행위는 위계서열을 바꾸고, 권력의 균형을 마련하기 위한 시도일 수 있다. 이러한 시도는 부부관계에서 권력의 균형보다는 위계부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오히려 불행한 해결책이 된다. 이러한 부부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부간의 동등한 관계를 이루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전략적 접근들은 목표에 대한 관점과 접근방법이 다소 다르다. MRI 단기치료에서는 의뢰된 문제에 대해서 가족들이 만족한다면 문제는 해결되고, 치료자의 역할도 끝났다고 보았다. 반면 Haley는 가족을 구조적으로 재조직하려고 하였고, 가족의 위계나 경계선을 재구조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Milan모델에서는 현재의 드러나는 문제보다는 가족체계와 증상이 주는 의미를 밝히는데 초점을 두었고, 가족의 인식이나 신념을 변화시키려고 하였다. 이들은 게임을 유발하는 이상한 행동에 대한 동기를 재구조화하도록 계획하였다(김유숙, 2002).

그러나 전략적 접근을 하는 치료자들은 공통적으로 정적 피드백 고리(positive feedback loop)의 개념을 도입하였고 모델의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삼았다. 그들은 일반적인 어려움이 어떻게 반복되는 문제로 발달하는가에 대해서 가족구성원들이 그 어려움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보았다. 즉,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잘못된 시도를 함으로써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악순환을 가져온다는 것이다(Watzlawick, Weakland and Fisch, 1974). 가족체계가 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적 피드백(negative feedback)은 실제로 그 문제를 확장하는 정적 피드백의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가족은 지금까지 시도한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Nichols and Schwartz, 2008).

따라서 기존의 효과가 없었던 해결방식들을 중단하고 새로운 해결책을 시도하려면 가족의 규칙도 변해야 한다. 가족에게는 암시적인 규칙들이 모든 생활을 통제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해결책을 시도해야 하는 상황에서 변화해야하는 것은 새로운 행동뿐만 아니라 그 행동을 지배하는 규칙이 변화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가족규칙의 변화에 대해서 MRI의 단기치료에서는 재구성을 강조한다. 재구성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해석과는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이다. Haley와 Madanes의 전략적 가족치료는 가족내부에 있는 위계 구조를 지배하는 규칙을 중요하게 보고, 문제의 이면에는 역기능적 가족위계가 있다고 보았다. Milan모델(Parazzoli, Boscolo, Cecchin, and Prata, 1978)도 가족의 상호작용은 일종의

파워게임이며, 증상은 가족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고 보았다(Nichols and Schwartz, 2008).

본 사례연구는 MRI모델과 전략적 접근들에서 강조하는 피드백고리의 개념을 사용하여 재혼가족의 갈등 및 상호작용 그리고 치료적 개입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2) 재혼가족에 대한 선행연구

(1) 재혼가족 연구의 동향

현대 사회에서는 재혼을 사회의 예외적 현상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재혼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을 가지고 있고, 비정상적인 가족의 형태로 보는 경향이 크다. 19세기말까지 남편과 사별한 여성의 재혼을 금지하였기 때문에 이 전통이 현대까지 미치고 있다. 재혼한 여성은 전부인을 대신해서 가사와 자녀양육을 담당하며, 가족 내에서 지위를 획득해야 했기 때문에 의붓자녀들에게는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한편 남편의 재혼은 여성에 비해서 사회적으로 허용적인 측면이 크다. 부계혈연이 강한 우리의 가족제도에서 남녀의 똑같은 재혼에 대해서 여성을 남성의 가족에 편입된 사람으로 취급한다. 한국에서는 재혼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 실증연구가 부족하다. 이것은 재혼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사회적 관심의 결여 때문이며, 재혼자들이 타인에게 재혼사실을 노출하기 꺼리며, 연구자들이 연구대상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정현숙・유계숙, 2003).

재혼가족은 특성상 초혼가족과 많이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재혼가족의 특성은 다양한 인간관계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계의 구조가 복잡하고, 가족 내에 포함되는 사람에 대한 경계들이 불분명하고, 구성원들에게 기대되는 사회적 규범이 빈약하다(유영주, 2007). 재혼가족은 부모와 자녀들의 상실과 변화의 경험이 크며, 조화롭지 못한 개인, 결혼, 가족생활주기로 시작하며, 이전 가족에서 형성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며, 부모-자녀의 관계가 새로운 부부관계보다 일찍 형성되며, 자녀들의 기억 속에 다른 가족과 생물학적 부모가 존재하며, 자녀들은 두 가족의 구성원이 될 수도 있으며, 계부모와 의붓자녀들 간의 법적 관계가 애매하다는 점에서 초혼가족과 구조적으로 다르다(Visher and Visher, 1996). 또한 성공적인 재혼가족의 특성은 상실을 잘 처리하고, 기대가 현실화되고, 부모가 강하게 통합되고, 건설적인 의례가 확립되고, 만족스러운 재혼가족이 형성되고, 분리된 가족들의 협동이 이루어지는 것이다(Visher and Visher, 1990).

국내의 연구에서 재혼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재혼부부의 역할모호, 역할갈등, 가족경계의 모호성, 가족지지 및 재혼가족 유형이며, 성별, 교육기간, 재혼기간, 공동자녀 여부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김효순・김명용, 2007). 2007년도에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내방하여 상담한 동거1년 미만인 302명 중에서 재혼한 비율은 39.4%로, 전체 이혼상담에서 나타난 재혼비율 15.0%보다 월등히 높았다(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08). 이와 같은 결과는 재혼의 경우 갈등이 생기면 재이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연구된 재혼가족에 대한 기존의 접근들은 재혼가족의 스트레스 및 적응

(임춘희·박경란, 1997; 현은민, 1998; 김연옥, 2002; 김효순, 2006a; 김효순, 2006b), 생활만족도 및 생활의 질(석정희, 2004; 정현숙·유계숙·임춘희·전춘애·천혜정, 2000; 김효순·엄명용, 2007) 가족교육프로그램(현은민, 2002; 김연옥, 2004; 임춘희, 2006)에 초점을 두고 있다. 연구 대상별로는 노년기의 재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서병숙·김은진, 1996; 임춘희 1997; 임춘희·박경란, 1997; 서병숙·김혜경, 1998; 최영아·이정덕, 2000; 나임순, 2002; 배진희, 2004; 석정희, 2004; 박충선·배나래, 2005).

(2) 재혼가족의 치료적 접근

재혼가족에 대한 치료적 연구가 미비한 것은 재혼생활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의 발생으로 인하여 가족생활주기의 예측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또한 혈연-비혈연관계의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공통의 가족역사가 없기 때문에 재혼가족은 치료과정에서도 지나치게 감정적이거나 위축되므로 치료자들에게도 힘든 사례로 인식이 된다(김유숙, 2006).

재혼가족에 대한 가족치료의 장기목적으로는 서로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예외적인 것을 받아들이며, 부모의 새 배우자를 부모로 받아들이고 동등한 양육자로 인정하며, 부모는 배우자의 자녀양육에서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부모는 화합을 위하여 편애를 중단하고, 계부모는 배우자의 자녀들을 무시하지 않고 공평하게 대하도록 한다고 보았다. 또한 단기목표로는 구성원 각자의 관점에서 갈등과 문제를 규명하고, 배우자간의 유대감 강화를 위하여 의사소통기술을 사용하며, 부모는 자녀들에게 조종당하지 않기 위하여 서로 협조하고 대화하며, 가족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해서 동등하게 대우받는 느낌을 가지도록 합의해야 한다고 보았다(Jongsma and Dattilio, 2000).

재혼가족에 대한 가족치료의 유용성으로 파악된 치료자들의 전문적인 방법들은 재혼가족 구성원들의 경험에 대한 확인, 재혼가족 상황과 도전에 대한 정상화, 성인들의 무기력함의 감소, 부부관계의 강화였다. 또한 이들의 연구에서 재혼가족치료에 대한 남녀의 응답을 비교한 결과 여성들은 감정의 확인, 남성들은 심리교육이 가장 유용한 개입방법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족의 안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남녀 모두 부부관계의 강화였다(Visher, Visher and Pasley, 1997). 재혼가족치료에 참여하는 클라이언트는 자녀양육과 재혼가족기능에 가장 관심이 컸으며, 정서적 지지, 문제점의 명료화, 치료과정과 구조가 가장 유익하다고 보고하였다(Pasley, Rhoden, Visher, and Visher, 1996). 또한 재혼가족치료에서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유해하거나 유익한 주제들을 발견하였다. 그것들은 시간과 관심의 상실, 재혼의 의미에 대한 자녀와 부모의 차이, 훈육에 대한 문제와 충성심의 문제, 진행 중인 원가족에 대한 심리적 중요성, 부모 간의 갈등이었다(Cartwright, 2003).

Minuchin(1984)은 재혼가족의 문제는 전환기적 특성을 가지며 재혼가족의 과제는 소속감, 친밀감의 증진, 협력이라고 보았다. 게다가 청소년기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들의 독립뿐만 아니라 거리를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재혼가족에 대한 이야기치료(narrative therapy)는 재혼가족을 지원함에서 있어서 가족생활의 이전 역사들이 주는 영향, 재혼가족 내의 복잡한 관계의 구조, 충족되지 않은 기대로부터 발생하는 실망들, 그리고 재혼가족에 관련된 사회적 신화와 낙인들을 다루는데 특히 유용하며, 치료적 강점은 치료에 대한 특정한 규칙이 없다는 점, 치료자가 치료접근을 창조적으

로 변경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았다(Shalay and Brownlee, 2007).

국내에서 발표된 재혼가족의 치료에 대한 경험적 사례연구는 거의 없는 편이다. 김유숙(2006)은 응집력이 약한 재혼가족의 특성을 감안하여 은유적 놀이와 강점지향의 치료적 대화를 추구하는 사회구성주의적 관점에서 가족치료를 실시하였다. 공유된 가족역사가 없는 재혼가족에서 놀이라는 은유적인 방법은 초기에 가족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개입이 가능하였고, 구성원들이 감정을 표현하는데 안전하였으며, 가족문제를 예방하는데 유익하며, 초기 이후에 하위체계별로 개입도 유용한 것으로 밝혔다.

4. 연구방법

1) 연구대상

(1) 가족치료의 과정

가족치료는 2005년 3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총 9회기로 진행되었고, 참여한 가족성원은 남편(41), 부인(38), 딸(17), 큰 아들(15), 작은 아들(14)이었다. 가족치료는 주로 재혼한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자녀들도 개별적으로 1회씩 참여하였다. 사례의 분석은 9회기 동안 진행된 가족치료의 과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가족치료는 사회복지와 가족치료에 대한 공인된 자격을 가진 전문가(가족치료수퍼바이저)가 실시하였고, 치료적 접근은 MRI의 의사소통모델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2) 가족력

남편(41)과 부인(38)은 약 4년 전부터 재혼생활을 시작하였다. 남편은 두 번의 이혼을 거쳐 세 번째 결혼생활이었으며, 첫 결혼에서 딸(17)을, 둘째 결혼에서 아들(14)을 두었다. 한편 부인은 전남편과 결혼생활에서 아들(15)을 낳았다. 가족구조는 이혼과 재혼의 반복을 거쳐서 형성된 혈연-비혈연관계로 인하여 복잡하고도 미묘한 형태를 가지게 되었다.

(3) 문제력

부인은 재혼 초기부터 음주로 인한 문제행동을 하였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술을 마시며, 술취한 상태에서 남편과 의붓자녀들에게 거친 욕설을 퍼붓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이성을 잃거나 종종 집을 뛰쳐나가기도 하였다. 부인은 길에 쓰러져 잠들기도 하였고, 그때마다 경찰이나 주민들이 발견하여 집에 데려오기도 하였다. 부인은 술을 먹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술이 깨면 이전의 행동은 기억하지 못하였다. 남편은 부인의 음주행동을 저지하고자 부인의 뺨을 때리거나 온몸을 무차별 구타하고, 심지어 부인을 발로 짓밟았다. 부부싸움은 부인이 술을 먹을수록 격렬해지고 부부간의 욕설과 폭력이 난무해졌다. 자녀들은 부모의 싸움을 말리면서도 부인의 음주행동을 비난하였다. 부인을 제외한 가족구성원들은 부인의 음주행동을 감시하고, 막으려고 하였지만 부인은 외상 혹은 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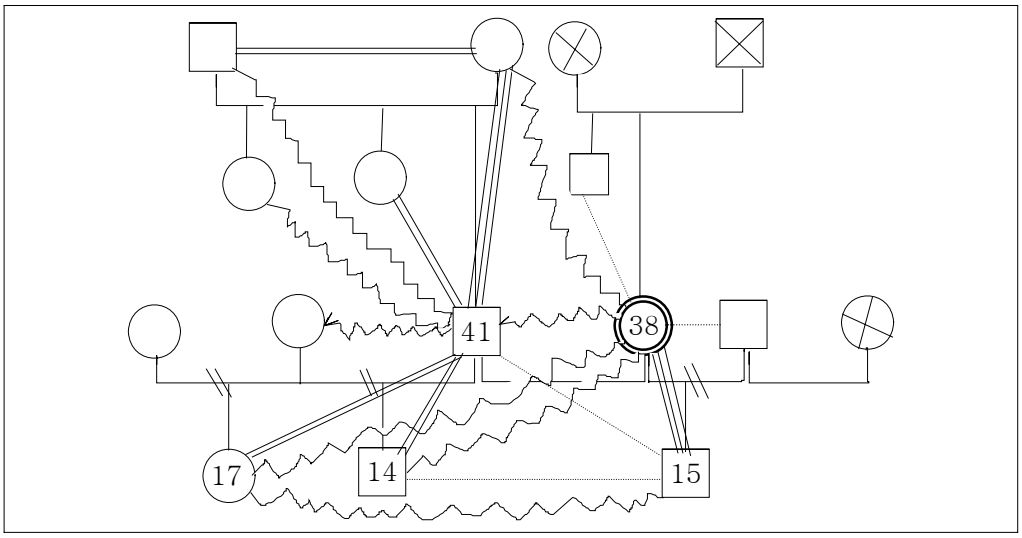
주문으로 술을 구입해 마셨다. 가족은 매번 반복되는 혼란을 경험하였으며, 부인의 음주행동은 가족구성원 간의 혈연 대 비혈연의 대립을 만들었고, 부부갈등, 부모자녀갈등, 자녀 간 갈등을 촉발시켰다.

이러한 부인의 알코올중독 및 문제음주행동이라는 증상은 가족구성원 특히 남편이 부인에게 보내는 부적 피드백과 맞물려서 연쇄적인 상호작용을 하였다. 가족들이 부인의 증상에 대하여 부적 피드백을 보낼수록 그것은 오히려 정적 피드백의 효과를 가져왔고, 문제를 지속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즉, 부인의 문제행동에 대해서 가족들이 사용하는 의사소통방식은 효과적이지 않았으며, 부인의 문제, 즉 음주행위를 더욱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물론, 부인이 사용하는 의사소통 방식 또한 가족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야기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부인의 증상은 가족 안에서 부조화스러운 위계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부인은 가족관계에서 증상을 가짐으로써 열등한 위치에 놓였고, 또한 증상을 통해서 우월한 위치에 놓일 수 있었다. 게다가 재혼으로 인한 부인과 남편의 혈연-비혈연적 자녀의 관계는 부부 및 자녀의 상호작용을 복잡하게 만드는 또 다른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재혼가족의 특성상 부부위계에 대한 재구조화가 필요하였고, 부부와 다른 가족성원들은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상호작용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4) 가계도의 해석(부부관계를 중심으로)

남편은 외아들이면서 막내로 성장하였다. 남편은 부모들의 지나친 허용과 방임적 태도로 인하여 청소년기부터 탈선과 방황의 생활을 하였다. 남편은 아버지와 갈등관계를, 어머니와는 밀착된 관계를 가졌다. 특히 어머니와 밀착관계는 현재의 결혼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남편은 외롭게 자란 자신의 딸에 대하여 많은 정서적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두 번째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과도 정서적 유대감이 있었다. 반면에 의붓아들인 큰아들에 대해서는 소원한 관계에 있었다. 부인의 경우, 친정부모는 오래 전에 사망하였고, 연락이 끊긴 오빠 한명이 있었다. 부인은 전남편과 소원한 관계로 인해 친아들과 밀착되었다. 따라서 친아들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은 자녀들의 갈등, 부인과 의붓자녀들의 갈등으로 이어졌다.



〈그림 1〉 가계도

2) 연구 질문

(1) 재혼가족의 갈등을 지속시키는 상호작용은 무엇인가?
(2) 가족갈등에 관련된 재혼가족의 특수성은 무엇인가?
(3) 재혼가족의 갈등에 대한 가족치료적 개입관점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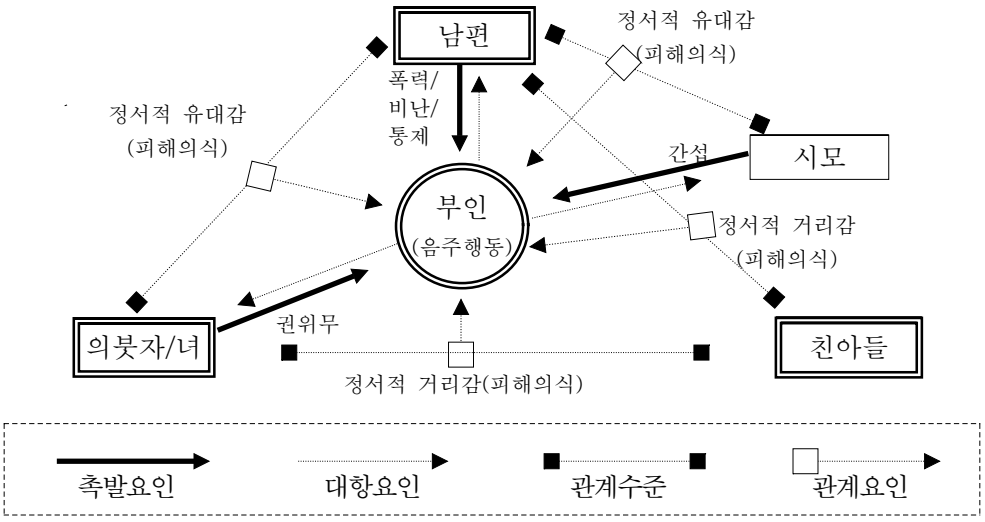
3) 분석방법 및 신뢰도 검증

본 연구는 사례연구로서 가족치료회기에 나타나는 재혼가족의 상호작용, 재혼가족의 특수성, 가족치료의 접근관점과 결과에 대한 요인들을 찾기 위하여 질적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특히 자료 속에서 반복되는 같은 의미의 개념들을 분류하여 상위개념으로 범주화하는 코딩작업을 거쳤고, 이렇게 형성된 상위개념들을 Miles와 Huberman(1994)이 제안한 매트릭스와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설명을 하였다. 본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1회부터 9회기 까지 자료에서 반복되는 개념을 지속적으로 비교하였고, 축어록, 상담기록지, 녹음 및 영상자료를 활용하여 자료의 삼각화를 추구하였고, 치료자와 연구자의 토론 및 전문가집단의 토론을 통하여 연구자의 삼각화를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상담내용의 사용에 대한 내담자의 동의를 받았다.

5. 연구결과

1) 재혼가족의 갈등을 지속시키는 상호작용은 무엇인가?

부인의 음주행동과 가족의 반응은 순환적 인과성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부인의 음주행동과 가족구성원들이 보이는 반응은 상호작용적인 것이며, 어느 것이 원인이고 결과인지가 명확하게 나누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본 연구는 부인의 음주행동과 가족의 반응을 중심으로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부인의 음주행동을 유발시키는 가족의 반응은 촉발요인으로, 가족의 반응을 유발하는 부인의 음주행동은 대항요인으로, 혈연 및 비혈연관계의 수준에 따라서 부인이 경험하는 피해의식(정서적 거리감)은 관계요인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부인의 음주행동을 둘러싼 가족의 상호작용은 〈그림 2〉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림 2〉 가족의 상호작용

(1) 촉발요인으로써 가족의 반응

촉발요인은 부인의 음주행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표 1〉과 같이 범주화할 수 있었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편의 폭력적 대응, 비난, 통제이었다. 남편은 부인이 음주행동을 보일 때마다 다시는 술을 찾지 못하도록 구타했다. 신체부위를 가리지 않고 때렸으며, 밖에 나가서 술을 사지 못하도록 온몸을

짓밟기까지 하였다. 남편의 폭력은 부인이 음주행동을 보일 때마다 발생하였다. 그러나 남편의 비난과 통제는 부인이 술을 먹지 않았을 때에도 발생하였다. 또한 남편은 부인의 음주에 대해서 욕설과 거친 표현으로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 심지어 자녀들 앞에서도 욕설을 퍼붓고 모욕적 표현을 하여 엄마로서의 위신을 깎아내렸다. 남편은 부인의 일상적인 외부활동을 제한하였고 집안 살림만 하도록 강요하였다. 부인은 집에 있는 것이 답답하고 외로워도 밖에 나갈 수 없었다. 가정생활에서는 모든 것에 대해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했고, 부인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었다. 또한 남편은 부인이 독자적인 행동을 하거나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하면 부인에게 심하게 화를 냈다. 남편은 부인의 귀가시간을 점검하고, 하루에 10여회 이상 무엇을 하는지 확인전화를 하였다.

둘째, 의붓자녀들은 부인이 가지는 '엄마의 권위'를 무시하였다. 의붓자녀들은 부인을 엄마로 존중하는 태도가 없었다. 의붓자녀들은 부인의 잘못한 점들을 남편과 시모에게 고자질하여 부인을 곤란에 빠지게 하였고, 종종 자녀와 부인 사이에 서로 신체적인 싸움까지도 발생하였다. 의붓자녀들은 부인에게 의도적으로 화를 내기도 하였고, 같이 살기 싫다고 가출도 시도하였으며, 모와 헤어지라고 남편에게 종용하기도 하였다.

셋째, 시모가 부인에게 간섭을 심하게 하였다. 남편은 시모와 밀착된 관계를 형성하였기 때문에 핵가족체계에 대한 시모의 영향력이 컸다. 시모는 매일 전화하여 부인의 음주여부를 확인하였고, 신앙적으로 가르쳤다. 시모는 부인을 시댁으로 불러서 살림일을 시켰고 제대로 못한다고 스트레스를 주기도 하였고, 부인이 음주행동을 보이면 직접 부인을 찾아와서 화를 내곤 하였다.

〈표 1〉 촉발요인으로써 가족의 반응

상위범주	하위범주	개 념
가족의 반응	남편의 폭력	음주하면 때리고 짓밟음/죽을 정도로 때림/일주일동안 누울 정도로 때림/신체부위를 가리지 않고 때림/자녀들 앞에서 때림/단주시켜려 때림
	남편의 비난	죽이겠다고 협박/술먹으면 욕설퍼부음/자녀들 앞에서 쌍욕함/엄마로 인정하지 않음/화를 잘 냄/너랑얘기하면 안통한다/너는 툭하면 집나가냐/집에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너는 왜 인상 찌푸리고 댓구도 안하고 지랄인데/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욕함/전화로도 욕함/병신지랄멍청이
	남편의 통제	외부에서 일하지 못하게 함/여자가 돈버는 것 싫어함/조금이라도 늦으면 불호령/뭔가 살 때에 허락받아야함/뭐든 물어보고 결정해야함/남편의 말에 순종해야함/혼날 때 이유를 대면 더 혼남/밖에 나가는 것을 싫어함/하루에 10번이상 전화확인/무조건 반대
	의붓자녀들의 권위무시	부인과 따로 살자고 함/부인 때문에 가출시도/부인과 치고 박고 싸움/ 술먹으면 자녀들도 욕함/부인이 말해도 딸은 안듣거나 대답을 안함/부인말에 의붓자녀들은 무반응/사실대로 말하지 않음/항상 무시당하는 느낌/우리만 참으면 뭐해하고 대들음/자녀들이 약올림/이중인격자라 지칭/조모나 남편에게 부인의 행동을 고자질함/엄마로 인정하지 않음
	시모의 간섭	시댁에 가서 일할 때에 스트레스 제공/부인에게 하루에 한번씩 전화함/알코올병동에 같이 데려감/부인의 음주를 싫어하고 화를 냄/금주약속을 어긴 것에 화냄/매일 전화로 신앙적 이야기함/시모를 욕하였다고 부인을 찾아서 혼냄

(2) 대항요인으로써 부인의 음주행동

부인은 평소에 조용하고 말이 없지만, 술을 먹으면 마치 딴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하였다. 부인의 음주행동은 〈표 2〉와 같이 범주화할 수 있었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인은 분노를 가족들과 이웃주민들 앞에서 여과없이 표출하였다. 가재도구를 마구 집어던져서 부수었고, 가족들과 싸움을 벌이고, 가족들이 잠을 못 자도록 소란을 피웠다.

둘째, 부인은 거친 언어표현과 욕설들을 사용하였다. 남편과 갈등이 커질수록 부인의 표현방식도 거칠어졌다. 남편과 의붓자녀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며, 의붓자녀들의 험담을 남편에게, 남편의 험담을 의붓자녀들에게 하였다.

셋째, 부인은 행동의 통제력을 상실하였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가구에 부딪혀서 상처가 나고, 집밖으로 뛰쳐나가서 길에서 쓰러져 자거나, 술에서 깨어나면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가족치료를 받는 중에 부인은 정신병원에서 알코올중독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넷째, 부인은 음주를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돈이 생기면 술을 마셨고, 돈이 없으면 외상으로 술을 구입하였으며, 밖에 나갈 수 없으면 전화로 주문하였다. 일주일에 평균 소주 1-2병을 마셨고, 심할 때에는 빈속에 8병을 마시기도 하였다.

다섯째, 부인은 의붓자녀들에 대하여 차별대우를 하였다. 부인은 친아들에게는 욕을 하지 않았으나 의붓자녀들에 대해서는 신랄한 비난과 욕설을 퍼부었고, 친아들이 말리면 고분고분해졌으나, 의붓자녀들이 말리거나 신체적 접촉을 하면 화를 내고 뿌리쳤다. 가족의 생활에서도 두드러지게 친아들만 챙기고, 의붓자녀들에게는 덜 신경쓰는 태도를 보였다.

〈표 2〉 대항요인으로써 음주행동

상위범주	하위범주	개 념
부인의 음주행동	분노표출	물건을 집어던져서 부숨/술이 깰 때까지 이를 갈음/남편과 싸움/쫓아다니면서 시비/얼굴이 무섭게 변함/자는 애들을 깨움/감정을 표출/성격이 괴팍해짐/술안 먹을 때에는 화내지 않음
	거친언어	의붓자녀들에게 욕설/남편에게 욕설/똑같은 이야기를 반복/친아들이랑 집을 나간다함/이혼하자고함/헤어지자고함/니네끼리 잘먹고 잘 살아라/같이 살기 싫다/니 애비랑 잘 먹고 잘 살아라/술먹으면 딸에게 욕설을 퍼부음/이름대신 욕으로 부름/딸의 잘못을 남편에게 말함/자녀 앞에서 부를 비난함/남편에게 의붓자녀들의 험담함/남편과 시모를 욕함
	통제력 상실	술깨면 행동을 기억못함/식탁에 부딪혀 다침/ 집을 나감/밖에서 쓰러져서 잠듬/일주일정도 아픔/단주를 약속하나 못 지킴/동네사람이 업어옴/순찰차가 데려옴/알코올중독 진단받고 입원/7일간 가출/음주전후 행동이 급격히 다름/말이 많아짐
	음주방식	돈생기면 술먹음/돈없으면 외상으로 술구입/전화로 술을 주문해서 구입/빈속에 깡소주 8병도 마심/일주일에 평균 소주 1-2병마심
	의붓자녀들에 대한차별	친아들이 말리면 들으나 의붓자녀들이 말리면 싫어함/ 의붓자녀들이 만지는 것을 싫어함/친아들과 의붓자녀들을 비교함/직접이야기 하지 않고 다른 자녀에게 험담함/친아들을 찾음/내자식 내자식/친아들에게는 호의적 태도/친아들에게만 용돈을 줌/ 친아들에게만 맛있는 것을 챙겨줌/

(3) 관계요인으로써 피해의식

간접요인은 가족의 관계수준에 따라서 부인의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피해의식이었다. 남편과 의붓자녀들의 관계(정서적 유대감), 남편과 친아들의 관계(정서적 거리감), 친아들과 의붓자녀들의 관계(정서적 거리감), 남편과 시어머니의 관계(정서적 유대감)에 따라서 부인은 피해의식을 경험하였다. 부인이 경험하는 피해의식은 〈표 3〉과 같이 범주화할 수 있었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인은 남편과 의붓자녀들의 정서적 유대감으로 인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혈연관계로 형성된 남편과 의붓자녀들의 관계에서 부인은 엄마와 아내로 역할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둘째, 부인은 남편과 친아들의 정서적 거리감으로 인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비혈연관계인 남편과 친아들의 관계는 법적인 부자관계일뿐 정서적인 관계까지는 형성되지 못하였다. 부인은 남편이 의붓자녀들에게는 잘 대해주는 반면에 친아들은 비혈연적 관계이기 때문에 잘 대해주지 않는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

셋째, 부인은 친아들과 의붓자녀들의 정서적 거리감으로 인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숫적으로 우세한 의붓자녀들과 친아들이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 때문에 부인은 마음이 불편하였다. 의붓자녀들이 친아들을 따돌리고 무시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친아들을 우대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하였다.

넷째, 부인은 남편과 시어머니의 정서적 유대감으로 인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부인은 시댁에 갈 때마다 시댁의 살림일을 거들었으나 남편에게 역할이 미흡하다는 핀잔을 듣기도 하였다. 또한 남편이 지나치게 시어머니와 가깝게 지내는 것들에 대해서 부인은 시샘하기도 하였다.

〈표 3〉 관계요인으로써 피해의식

상위범주	하위범주	개 념
부인의 피해의식	남편과 의붓자녀들의 유대감으로 인한 피해의식	자기네(혈연관계)끼리 더 친밀함/부인이 끼어들 자리 없음/부녀가 친한 것을 싫어함/의붓자녀들에게 비싼 것을 사준다고 남편에게 핀잔줌/나는 이집에 들어와 서 밥하고 빨래하는 사람이냐고 화냄
	남편과 친아들의 거리감으로 인한 피해의식	친아들은 소외됨/친아들은 밤늦게 들어옴/친아들은 게임할 시간없음/남편은 친아들의 탈선을 걱정함/친아들과 따로 나가서 살기 원함/친아들은 남편보다 더 친밀한 존재
	친아들과 의붓자녀들의 거리감으로 인한 피해의식	의붓자녀들가 친아들을 은근히 따돌림/ 의붓자녀들끼리 더 친밀함/ 친아들과 의붓자녀들의 사이가 나쁨
	남편과 시모의 유대감으로 인한 피해의식	시모를 시샘함/남편은 부인이 시댁에서 일하는 것을 미흡하게 느낌/시댁에서 혼자 일함/일주일에 한번 가족들이 시댁을 방문함/남편과 시모는 아주 친밀함/남편은 효자임

(4) 부인의 음주행동이 가족에 미치는 영향

부인의 음주행동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은 〈표 4〉와 같이 범주화할 수 있었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인의 음주행동은 가족의 분위기를 경직시켰다. 부인의 음주행동으로 인하여 가족의 분위기가 침체되고, 남편의 신경이 예민해졌으며, 자녀들은 부모의 눈치를 살피고 대화를 꺼려하였다. 평소에도 자녀들은 부모의 안색을 살폈으며, 분위기가 좋으면 말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조용히 자신의 일만 하였다.

둘째, 부인의 음주행동은 가족성원들의 사회적 체면을 손상시켰다. 부인이 술에 취하여 동네에서 소란을 피우고, 가출하여 길에서 쓰러져서 잠들면 동네사람들이나 경찰관이 데려왔다. 이러한 사건들로 인하여 가족들은 지역사회에서 창피함을 느꼈고, 자녀들은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외부에서 하지 않았다.

셋째, 부인의 음주행동은 가족성원의 일시적인 동맹관계를 구축시켰다. 가족성원들은 부인의 음주에 민감하였기 때문에 음주행동을 막기 위하여 협력하였고, 술을 사먹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남편은 수시로 전화하여 음주사실을 점검하였고, 자녀들도 자신의 지갑을 숨기거나 부인이 술을 사먹지 못하도록 말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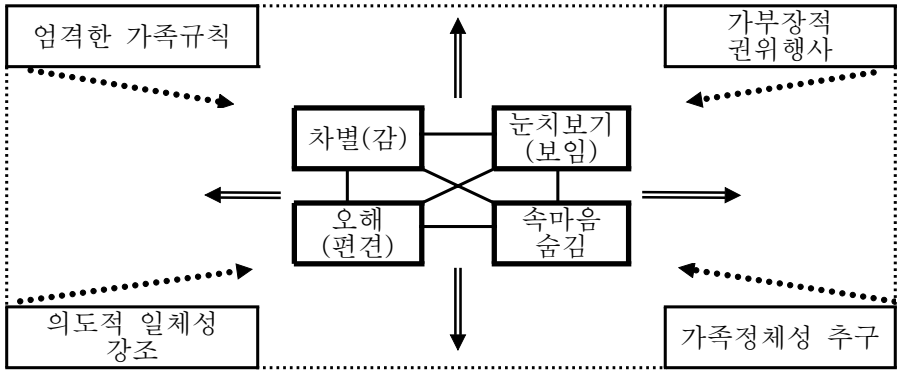
넷째, 부인의 음주행동은 형제관계를 약화시켰다. 모의 음주행동이 있을 때에는 형제들이 행동적인 측면에서 일시적으로 협력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음주행동 이후에는 혈연-비혈연으로 분리되면서 관계가 더욱 나빠졌다.

〈표 4〉 가족에 미치는 영향

상위범주	하위범주	개 념
음주행동이 가족에 미치는영향	가족분위기 경직	가족의 분위기가 나빠짐/자녀들이 부모의 눈치를 살핌/가족이 웃지않음/서로 말하지 않음/남편의 신경이 날카로와짐/부부갈등이 심해짐/자녀들은 집을 떠나서 편하게 살기를 원함/친아들이 부인을 구타함
	사회적 체면손상	집안이야기 밖에서 하기 싫음/가족에 대해서 말하지 않음/ 부와 자녀들이 망신스러워함
	가족성원간 동맹	자녀들이 남편의 구타를 말림/부인의 음주를 감시함/ 부인이 술사러 가는 것을 자녀가 말림/ 자녀들이 돈을 숨김/남편에게 음주사실을 알림
	형제관계의 약화	의붓자녀들끼리 친해짐/의붓자녀들끼리 부인을 욕함/친아들과 의붓자녀들의 관계가 서먹함/부인과 의붓자녀들이 싸우면 친아들은 속상함

2) 가족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재혼가족의 특수성은 무엇인가?

가족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재혼가족의 특수성은 〈그림 3〉과 같이 설명할 수 있으며, 재혼가족의 결합을 어렵게 만드는 암묵적 상호작용과 재혼가족의 결합을 강화시키려는 통제적 상호작용으로 구분할 수가 있었다.



〈그림 3〉 암묵적 상호작용과 통제적 상호작용

(1) 재혼가족의 결합을 어렵게 만드는 암묵적 상호작용

암묵적 상호작용은 암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가족생활 안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낼 수 없는 민감한 부분이었다. 즉, 암묵적 상호작용은 혈연-비혈연관계의 혼합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재혼가족의 특수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재혼가족의 결합을 어렵게 만드는 암묵적 상호작용은 〈표 5〉와 같이 범주화할 수 있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차별감은 가족성의 혈연관계가 다른 경우에 서로에 대해서 차별적이고 억울하다는 인식과 감정을 경험하게 하였다. 상황에 따라서 가족 성원 간에서 실제로 차별적 태도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혈연관계보다 비혈연관계에서는 더욱 강한 차별감이 느껴진다는 점이다.

둘째, 눈치보기(보임)는 가족성원들이 무엇을 할 때에 주도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가족상황을 파악하고 분위기를 살펴야 하는 것이었다. 이 경우도 혈연-비혈연관계의 특성에 많이 좌우되었고, 특히 자녀들은 부모의 눈치를 많이 살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오해와 편견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소한 일에도 불구하고 가족성원들 간에 갈등을 야기시켰다. 어떤 사건은 좋은 의도로 했지만 나쁜 의도로 의심을 받기도하고, 어떤 일은 아무런 의미도 없었는데 사실과 다르게 받아들여졌고, 때로 사소한 일도 심각한 잘못으로 받아들여졌다.

넷째, 속마음을 숨김은 가족성원들이 속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는 것이며, 특히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타인이 자신의 감정을 받아줄 거라는 믿음이 없었고, 실제로 꺼내놓았을 때에 오해받거나 자신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다.

〈표 5〉 암묵적 상호작용

상위 범주	하위 범주	대상	개념
분열적 상호작용	차별(감)	의붓자녀	친아들은 잘해주고 의붓자녀들에게는 잘 안해 준다고 느낌/의붓자녀들의 부축은 싫으나 친아들의 부축은 허용/남편이 혼내면 괜찮고 부인이 혼내면 서운함/친아들에게는 욕을 안함/친아들은 남편보다 더 친밀한 존재/부인이 친아들을 혼내는 것은 진짜 미움이 아님/친아들과만 많은 대화/부인은 친아들을 더 우선적으로 챙김/부인은 딸에게만 용돈을 안줌/의붓자녀들이 부인에게 장난쳐도 무반응임/의붓자녀들이 크게 불러도 부인이 무시
		부인	남편은 친아들을 더 챙김/의붓자녀들은 남편의 말을 더 잘 들음/차별없이 대하려 했으나 실제로는 안됨/남편과 의붓자녀들에게 소외감느낌/의붓자녀들이 항상 나를 무시하는 느낌듬/의붓자녀들은 잘해줘도 차별감느낌
		남편	부인은 의붓자녀에게 엄마의 행동을 안함/의붓아들을 내자식이 아니라서 야단을 치기도 함
		친아들	의붓누나는 양보하지 않음/의붓누나가 친구를 박대함/의붓자녀들이 상담실 가는 길을 알면서도 가르쳐주지 않음
	눈치보기(보임)	의붓자녀	부부싸움의 여부를 살핌/부모의 분위기를 살펴서 이야기함/부인의 기분을 살펴서 말함/부녀가 친하게 지내면 부인의 기분이 나빠지는 듯함/부인이 있으면 자녀들이 남편에게 속사정을 말하지 못함/부모가 같이 있으면 자녀들이 방에 들어가지 못함/남편의 배 위에서 장난치면 부인이 짜증냄
		부인	남편 때문에 의붓자녀들을 혼내지 못함/남편과 의붓자녀들이 같이 있으면 서운함/부인도 남편의 눈치를 살핌
		남편	남편은 부인의 눈치를 보며 말함/딸에게 비싼 것을 사주고 싶은데 부인의 눈치를 봄/딸을 사이에 두고 부인과 불편해함/부녀가 친하게 지내면 부인의 기분이 나빠지는 듯함
		친아들	부모가 싸웠는지 안싸웠는지 눈치봄/부모관계를 눈치보고 이야기함
	오해(편견)	의붓자녀	부인을 말린 것인데 때린 것으로 오해/아이씨라고 했는데 씨발이라고 들었다함/부인은 상처에 대해 의붓아들이 때렸다고 믿음
		부인	남편의 외도를 의심함/일부러 부인을 낚시에 데리고 가지 않는 듯
		남편	무시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무시받았다는 느낌을 가짐/새우를 가지고 왔다가 오해가 생김
	속마음숨김	의붓자녀	물어보면 화내거나 반대할 것 같음/대화를 하고 싶어도 속으로 참음/속사정은 말하지 않음/억울해도 속으로 삭힘/부인에게 솔직히 말하면 뒷감당이 안됨/힘들고 어려워도 형제끼리 말안함/분노와 억울함을 부모에게 이야기하지 못함/가족의 분위기를 망칠까봐 혼자 참음
		부인	부인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음/남편에게 섭섭하거나 화난 것을 말하지 않음/남편에게 고마움을 가지지만 마음으로만 가짐/가족에게 미안하지만 표현하지 않음/딸의 속마음을 알 수 없음
		남편	회사의 힘든 이야기를 가족과 나누지 않음/외부의 스트레스를 내색하지 않음/힘든 감정을 말하지 않음/힘든 일이 있으면 동네사람들과 술마심
		친아들	남편에게 물으면 화내거나 반대할 것 같음/대화를 원하나 속으로 참음/속사정은 말안함/억울해도 속으로 삭힘/형제간 게임에 대해서만 말함/의붓형제들과는 대화를 안함/속마음을 남편에게 말하지 못함/힘들고 어려운 것을 형제끼리 나누지 못함/집안이야기는 밖에서 하지 않음

(2) 재혼가족의 응집력을 강화시키려는 통제적 상호작용

재혼가족의 결합을 약화시키는 암묵적 상호작용에 대한 반작용으로 응집력을 추구하는 통제적 상

호작용이 있었다. 암묵적 상호작용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반면, 통제적 상호작용은 가족 안에서 공개적이었다. 통제적 상호작용은 남편에 의해서 주도되었다. 남편은 가족성원을 친가족처럼 묶으려고 시도하였으나 오히려 지나친 강요가 가족들의 반발을 만들고, 새로운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통제적 작용은 〈표 6〉과 같이 범주화할 수 있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엄격한 가족규칙은 부인과 자녀들에게도 적용되었다. 특히 귀가시간에 대한 통제는 예외가 없었고, 조금만 늦어도 남편은 전화로 위치를 파악하고 어디에서 무엇을하고 있는지 알려고 하였다. 가족성원들은 물건을 사거나 누구를 만나는 것도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 심지어 자녀들이 친구네 집에서 잠을 자거나, 학교의 수련회에 참가하여 외박하는 것도 반대하였다. 이러한 엄격한 규칙으로 인해서 부인과 자녀들은 일찍 집에 들어오고 가족중심의 생활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둘째, 의도적인 일체성을 강조하였다. 엄격한 가족규칙과 마찬가지로 남편은 의도적으로 가족들이 무엇을 함께 하도록 요구하였다. 가족은 휴일에도 함께 놀러가고, 홀로는 놀러가지 못하게 하였다. 가족들이 개인적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가족성원들의 자율성을 통제하고 획일화된 가족활동을 강조하였다.

셋째, 친가족과 같은 정체성을 추구하였다. 남편은 재혼가족이라는 사실을 서로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시간이 지나고 노력을 하면 친가족처럼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넷째, 가부장적 권위를 행사하였다. 남편은 가족구성원들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였고, 요구한 것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화를 내었다. 심지어 부인과 자녀들을 때리고 위협하기도 하였다. 남편은 집안의 모든 일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고, 가족의 구심점 역할을 하였다.

〈표 6〉 통제적 상호작용

상위범주	하위범주	개념
통제적 상호작용	엄격한 규칙	물건을 살 때에는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함/자녀들은 학교에 갔다오면 남편에게 전화해야 함/남편이 심하게 시간규제를 항상 자기 위치를 알려야 함/귀가시간을 강조함/여자라서 수련회에 참석하지 못함/친구네집에서 자는 것도 안됨/밤에는 밖에서 놀지 못함/정해진 귀가시간/자녀들이 탈선하는 것에 대한 염려/친구사귀는 것도 허락받아야 함
	의도적 일체성 강조	쉬는 날도 가족끼리 같이 있음/목욕탕도 같이 가거나 안가거나/공휴일에 밖에 놀러가지 못 하게함/자녀들이 부인을 무시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

상위범주	하위범주	개념
통제적 상호작용	정체성 추구	나은 정보다 키운 정으로 기른다/부인에게 잘해하면 변화가 올 것이다/ 차별을 두지 않으려고 노력/가족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서로 협력하자/마음을 맞춰서 행복하게 살자/서로의 입장설명/부인이 친엄마처럼 행동하기 바람
	가부장적 권위행사	남편이 가자고 하면 모두 가야 함/남편의 말을 따라야 함/남편이 화나면 자녀를 때림/소리를 지르면 가족성원들이 긴장함/남편에 대한 무서움/너무 무섭게 함/숨이 막힘/조금만 늦으면 불호령/성질을 많이 냄/조선시대사람 같음/고지식함

3) 재혼가족의 갈등에 대한 가족치료적 개입관점은 무엇인가?

본 사례에 대한 가족치료적 개입은 접근관점과 개입결과의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1) 가족치료의 관점

본 사례에서 가족치료는 재혼가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접근하였으며, 특히 부부체계를 중심으로 가족의 위계를 변화시키는데 초점두었다.

① 부부하위체계의 강화

치료자는 상담과정에서 부부하위체계를 중심으로 접근하였고, 부인의 증상을 부부간의 권력의 불균형으로 이해하였다. 치료자의 부부간의 동등한 위계관계를 형성해주려는 시도는 〈표 7〉과 같이 범주화할 수 있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치료자는 부인의 권위를 강화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치료자는 부인이 남편과 의붓자녀들로 부터 '부인'과 '엄마'의 역할을 인정받도록 유도하였다. 치료자는 우선적으로 남편이 부인을 지지하고, 특히 자녀들 앞에서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강조함으로써 부인이 가족 안에서 엄마로서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치료자는 가족 안에서 경험하는 부인의 입장을 남편에게 전달함으로써 남편이 부인을 돌보도록 하였다. 이렇게 남편이 부인을 지지하고 힘을 실어주자 부인은 가족 안에서 남편과 동등한 권위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치료자는 부부갈등에 대한 상호책임론를 강조하였다. 치료자는 부부갈등의 문제는 한 개인의 잘못보다는 상호원인제공의 측면을 부각시키고, 부부의 문제로 접근하였다.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헐뜯고 비난하는 대신에 상대방의 관점을 보도록 하였다. 상담장면에서도 부부 간의 갈등이 몇 번 있었으나 치료자는 어느 한쪽을 편들기보다는 양쪽의 오해와 실수 그리고 입장 차이를 지적하고 부부 간 협력을 강조하였다.

〈표 7〉 부부체계강화

상위개념	하위범주	개념
부부체계강화	부인권위강화	남편이 부인을 지지하면 자녀들이 부인을 존중함/남편의 지나친 관여는 엄마역할을 감소시킴/어머니보다 부인편을 들게함/남편이 부인의 편을 들면 엄마로서 권위가 생김/남편이 부인을 비난하지 말라/부인이 의붓자녀들을 혼내면 남편이 관여하지 말라/부인의 요구사항을 남편에게 대변해줌
	상호책임론	부부가 서로를 무안하게 만듬/부부관계의 문제로 봐야함/부부가 서로의 권위를 세워야 함
	긍정적 측면 강조	매회기 긍적적인 변화 확인/각자의 좋은 점 확인/부인의 변화지지/남편의 노력인정/남편앞에서 부인을 칭찬함/부인 앞에서 남편을 칭찬함/자녀들에게 부인의 좋은점을 유도함/결혼초에는 부부대화가 잘되었음/부인이 편안하게 느낀 것을 남편에게 알려줌/자녀들은 부모의 행복을 기원함

셋째, 치료자는 부부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치료자는 매회기 마다 부부생활에서 경험한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하고 서로의 노력과 발전에 대하여 지지를 하였다. 또한 남편에게는 부인의 긍정적인 면을, 부인에게는 남편의 긍정적인 면을 지지하고 서로가 상대방에 대하여 잘 몰랐던 내용들과 미래에 대한 희망들을 확인하였다.

② 의사소통방식의 변화추구

본 가족은 가족 간에 대화는 없었고, 남편의 일방적인 전달만 있었을 뿐이다. 가족 상호 간의 주거니 받거니 하는 대화가 없었고, 서로 자기의 말만 전달하려고 하였다. 의사소통방식의 변화추구는 〈표 8〉과 같이 범주화할 수 있었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치료자는 가족이 사용하는 비효과적 의사소통방식의 변화를 추구하였다. 가족

은 지금까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자 노력을 하였지만, 그것이 오히려 문제를 유지시키는 역기능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치료자는 부부간, 부모자녀 간, 자녀 간의 의사소통방식들이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그런 비효과적인 방식들을 변화시키도록 요구하였다. 또한 치료자는 부부에게 가족이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것은 부인의 술문제가 아니라 가족이 대화하는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둘째, 치료자는 가족의 언어적 의사소통의 증진을 추구하였다. 치료자는 가족이 부정적 감정들을 마음 속에 쌓아두거나 속으로 삭히기 보다는 서로에게 말로 표현하도록 하였다. 지금까지는 쌓아 두었다가 나중에 폭발하였기 때문에 싸움이 되었지만, 서로에게 솔직한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관계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세째, 치료자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타인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하려고 노력해야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가족성원들은 서로 자기의 입장만 주장하고, 자신의 억울함만 전달하려고 하였을 뿐 타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표 8〉 의사소통방식의 변화추구

상위개념	하위범주	개념
의사소통방식의 변화추구	비효과적 의사소통 방식의 변화추구	남편의 부정적 표현방식이 문제됨/말안해도 감정표현은 이루어짐/남편은 지나치게 말을 잘하나 부인은 표현하지 못함/부인이 니새끼라는 표현을 쓰면 친아들은 따돌림당함/두사람이 서로 탓하고 있어서 대화가 안됨/남편은 표현을 잘해서 부인이 화남/부인이 표현안하면 남편은 답답/같은 표현에도 서로의 느낌이 다름/남편의 표현은 부인의 기분을 상하게 함/집에서도 대화가 길게 이어져야함/부인은 감정을 표현해야 함/남편의 표현이 너무 거침/술을 안먹는다고 대화가 되는 것은 아님
	언어적 대화의 증가	속상한 것을 표현해야 함/감정을 쌓아두면 폭발하게됨/남편은 집에서도 회사일을 말할 것/감정을 속으로 삭히는 것은 도움 안됨/부부가 대화를 하라/ 좋고나쁜 것을 부인에게 말할 것/ 문제해결을 위한 의사소통의 기술부족
	청자의 중요성	자녀들은 대화할 사람필요/자녀들은 정서적 지지자가 필요/가족 안에 대화상대가 없는 것이 문제

③ 가족규칙의 완화

남편은 가족의 응집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지나치게 엄격한 규칙을 설정하였고, 이것으로 가족의

생활을 통제하였다. 이러한 남편의 엄격한 가족규칙은 가족성원들을 힘들게 하였고, 가족성원들 간의 응집력을 약화시켰다. 가족규칙의 완화는 〈표 9〉와 같이 범주화할 수 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치료자는 자녀에 대한 통제를 완화시키려고 하였다. 치료자는 자녀들이 청소년기이고, 가족생활과 더불어 사회생활도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통제하다기보다는 그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치료자는 남편이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관여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둘째, 치료자는 부인에 대한 남편의 통제를 완화시키려고 하였다. 치료자는 남편이 지나치게 부인의 사회생활을 통제하고, 음주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시로 전화하는 태도를 바꾸도록 하였다. 치료자는 남편에게 부인의 음주문제는 지나치게 통제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점도 강조하였다.

셋째, 치료자는 남편의 가부장적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려고 하였다. 치료자는 남편에게 가족규칙을 강조하는 이면에는 남편 안에 있는 불안감이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으며, 남편의 성장배경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시켰다. 가족은 힘이 없기 때문에 남편의 가부장적 통제 안에 있지만, 이는 진실한 순종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는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남편은 가족을 위해서 만든 규칙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으나 치료자는 오히려 가족을 위해서 있는 규칙이 아니며, 남편을 위한 규칙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표 9〉 가족규칙의 완화

상위개념	하위범주	개념
가족규칙의 완화	자녀통제 완화	자녀들의 귀가시간을 완화하도록 함/귀가문제를 가족생활주기로 설명함/자녀들에게 책임감을 부여/지나친 통제로 가출한 딸의 사례를 소개/자녀의 사소한 것에 관여하지 말라
	부인통제 완화	부인이 외부활동을 허용할 것/너무 많은 전화를 주고 받음/남편의 간섭이 스트레스와 음주로 이어짐
	부의 사고방식 지적	지나친 가부장적 사고방식/규칙강조는 남편의 불안 때문임/남편의 성장배경과 엄격한 통제가 관련있음/남편은 고지식하고 융통성없음/자녀들이 남편 앞에서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음/남편에게는 무서워서 순종함/현재의 규칙은 자녀를 위해 있는 게 아님/양육방식의 변화필요/규칙이 너무 강함

④ 차이점의 수용

치료자는 가족구성원들로 하여금 다른 가족성원의 다른 점들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였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각자가 경험하고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가족성원들은 상대방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고, 재혼가족의 특성상 서로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하지 못하였다. 차이점의 수용은 〈표 10〉과 같이 범주화할 수 있었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치료자는 가족성원들에게 가족구성원 각자의 입장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하였다. 가족성원들은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잘 알지 못하였고,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 하에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해와 갈등이 심화되었다. 치료자는 남편, 부인, 자녀의 입장을 서로에게 전달하였고, 서로가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여서 발생하는 오해들을 풀어주려고 노력하였다.

둘째, 치료자는 재혼가족의 특수성을 지적하였다. 치료자는 초혼가족과 달리 재혼가족은 양육의 갈등도 많고, 혈연-비혈연에 따라서 애로사항도 많고, 서로 오해도 많다는 사실을 인식시켰다. 또한 인간적으로 친자녀에게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알려주었다. 따라서 치료자는 가족성원들에게 재혼가족이라는 점을 부인하기보다는 현실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도록 권유하였다.

〈표 10〉 차이점의 수용

상위개념	하위범주	개념
차이점의 수용	각자의 입장을 이해시킴	부인의 입장을 자녀에게 이해시킴/각자의 관점과 감정을 상대방에게 전달함/부인에게는 대가족개념이 없음/부인의 고립감과 스트레스 설명/부인의 불쾌함을 설명함/의붓자녀들이 부인에 대해서 힘든 것을 이해시킴/남편에게 자녀입장을 대변/의붓자녀들이 느끼는 차별감을 부인에게 전달/ 서로 차이점을 인정하지 못함/의붓자녀들과 마찬가지로 친아들도 남편의 눈치를 살핌
	재혼가족 특성지적	재혼가족에서는 양육문제의 갈등/혈연과 비혈연 관계의 오해/친자식이 아니라서 따뜻하게 하는 것의 한계점/부모의 권위가 안세워지면 혈연관계로 분열됨/무엇을 해도 의붓자녀들은 차별감 느낌/남편은 전처의 자녀를, 부인은 친아들을 더 챙기는 상황/의붓아들이 재혼전에 더 편했음/혈연끼리만 친한 것은 좋지 않음/자녀들이 느끼는 부인의 음주전후의 이중적 경험을 지적

(2) 가족치료의 결과

가족치료를 통하여 변화된 것은 부인의 변화, 남편의 변화, 가족관계의 변화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본 사례는 부부하위체계에 중점을 두고 접근하였으며 치료결과도 부부하위체계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또한 치료회기가 짧았기 때문에 자녀하위체계의 변화에 대한 언급은 본문자료(text) 안에서 충분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물론, 이러한 결과가 자녀하위체계의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치료자의 사후확인에서 부부하위체계 및 형제하위체계의 변화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본 연구의 자료(data)로 사용하지는 않았다.

① 부인의 변화

부인의 변화는 가족치료를 통하여 가족 내에서 남편과 동등한 힘을 가지면서 더 이상 문제행동을 보이지 않았고, 가족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구축할 수 있었다. 부인의 변화는 〈표 11〉과 같이 범주화할 수 있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처음에 의뢰되었던 부인의 문제음주행동이 소거되었다. 부인은 상담 과정 중에 알코올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였고, 입원 후에도 가족치료세션에 참석하였다. 부인은 퇴원이후 2개월간 단주를 하였고, 이후에도 술을 약간 마시기는 하였지만 이전처럼 음주후의 문제를 일으키는 행동은 하지 않았고, 부인이 가족치료에 참여하면서부터 음주와 문제행동은 감소하였다. 가족치료과정을 통해서 부인이 변화된 모습은 문제행동의 소거뿐만 아니라 맨 정신으로도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가족성원들에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가족에 대한 부인의 소속감이 형성되었다. 부인은 피해의식과 소외감을 가지고 생활을 하였고, 이로 인해서 가족성원들과 마찰을 겪었다. 그러나 가족치료과정을 통해서 부인은 가족에 대한 소

속감을 경험할 수 있었다. 특히 부인은 자신으로 인해 힘들어 한 가족들에게 미안한 감정과 고마운 감정을 말로 표현하였다.

〈표 11〉 부인의 변화

상위개념	하위범주	개념
부인의 변화	문제행동의 변화	퇴원 후 2개월간 단주/ 술을 거의 마시지 않음/간혹 술마셔도 조용히 잠
	표현의 증가	맨정신에도 의사표현을 함/ 의붓딸과 대화를 많이 함/ 남편과 대화를 많이 함
	정서적 안정	옛날처럼 변덕스럽지 않음/혼자서 십자수함

② 남편의 변화

남편의 변화는 가족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부부관계를 강화시키는데 중요한 내용이었다. 이것은 남편이 가족생활에서 가장 큰 권력을 소유하였고, 가족치료에 대한 동기가 가장 높았던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남편의 변화는 〈표 12〉와 같이 범주화할 수 있었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편은 새로운 의사소통방식을 사용하였다. 남편은 말투를 부드럽게 바꾸고, 부인과 많은 대화를 나누려고 하였다. 남편은 화가 나더라도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노력을 하였고, 타인 앞에서도 부인에 대하여 언어표현을 조심스럽게 사용하였다. 또한 남편의 변화된 의사소통방식은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변화를 야기시켰다.

둘째, 남편은 부인을 존중하는 태도를 나타내었다. 남편은 부인의 권위를 자녀들 앞에서 세워주었고, 부인의 입장을 자녀들에게 대변하기도 하였다. 언어적인 태도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태도에서도 남편은 부인을 부드럽게 대하고, 부인의 감정을 존중해주는 모습을 보였다.

셋째, 남편은 자기성찰을 하는 태도를 보였다. 남편은 자신이 부인에게 상처를 많이 주었다는 점과 자신으로 인해서 부인의 음주문제가 강화되었다는 점을 인식하였고, 자녀들에게 신중하지 못하였음을 자각하였다.

넷째, 남편은 가족에 대한 통제를 완화시켰다. 남편은 자신의 통제가 가족을 힘들게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나서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가족들이 귀가시간이 늦어져도 전화로 채근하거나 화내지 않았고, 늦는 것을 수용할 수 있었다. 또한 친구네 집에서 자녀들이 자고 오거나 밖에서 놀다 오는 것에 대해서도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자녀들이 부인과 상의하도록 하였다. 남편은 엄격한 가부장적인 역할을 줄이고 좀 더 자율적으로 기능하는 가족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다섯째, 남편의 양육태도가 달라졌다. 가족의 일체성을 강조하고 권력으로 통제하지 않고 자녀들과 대화도 많이 하고, 혈연-비혈연관계를 떠나서 더 좋은 가족이 되도록 서로의 입장을 지지해 주었다. 특히 자녀들 앞에서 부인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말하고, 부인이 엄마로서 권위를 가지도록 힘을 실어주기도 하였다.

여섯째, 남편은 외부관계들을 차단하였다. 남편은 이전에 부인보다는 동네 술친구들과 더 친하게 지냈고, 부인에게는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면서 자신은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을 마셨다. 그러나 가족치료를 통하여 남편은 동네의 술친구들을 멀리하고, 자신과 부인의 갈등을 당사자끼리 해결하려고 노

력하였다.

〈표 12〉 남편의 변화

상위개념	하위범주	개념
남편의 변화	새로운 의사소통방식	많은 대화를 함/말투를 바꿈/폭력과 쌍소리를 안함/짜증을 곧바로 표현하지 않음/화나서 욕하다가 중지함/달리 갈등시간이 짧아짐
	부인을 존중하기	부인의 성품을 칭찬/부인의 변화노력을 인정/자녀 앞에서 부인을 두둔함/부인에게 존대말을 사용/부드럽게 대하려고 노력함/자녀문제로 부인과 상의함/자녀들이 부인에게 사과하게 함/자녀들에게 부인을 존중하라고 말함
	자기성찰	부인의 음주행동은 남편의 잘못임을 인정/부인에게 상처준 것을 인정/자신이 먼저 변화해야 한다는 점을 자각/가부장적 사고를 깨려고 노력/자신의 오만함과 도도함 인정
	통제완화	30-60여분 늦어도 야단치지 않음/놀다오는 것을 허용함/부가 자녀를 통제하는 것이 완화됨/친구집에서 자고와도 됨/군림자가 되지 않으려함
	양육 태도의 변화	자녀와 논리적, 이성적 대화/자녀가 부인에게 사과하게 함/남편은 부인에게 눈치보지 말고 자녀를 혼내라함/남편이 대화하려고 노력함/자녀들에게 부인을 존중하라고 말함/자녀들에게 화를 덜 냄
	외부관계차단	술친구 차단함/가족의 프라이버시를 생각하고 선을 그음/

③ 가족관계의 변화

가족치료를 통하여 나타난 가족관계의 변화는 〈표 13〉과 같이 범주화할 수 있었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3〉 가족관계의 변화

상위개념	하위범주	개념
가족관계의 변화	부부상호작용의 증가	부부가 같은 방에서 함께 잠/부부가 함께 쇼핑다님/부부간의 대화의 양이 증가/서로 대화를 많이 하려고 시도함/최근에 부부다툼이 없었음/서로 싸우지 말자고 이야기함/남편이 부인에게 자신의 눈치를 보지 말고 자녀를 혼내라함/부인이 남편을 위하여 요리를 함/부부끼리 대화 시도
	가족의 소속감 형성	엄마로서 부족함을 느낌/남편에 대한 고마움/가족에게 미안함/가족들이 조부모의 집을 방문하는 빈도가 줄어들음(주1->월1회)/부인과 의붓딸의 대화가 많아짐/남편이 자녀들에게 부인에 대한 연민을 표현함
	형제하위체계의 변화	의붓동생과 말도 많이 하게 됨/의붓동생도 요즘은 동생같음/의붓형제끼리 대화를 많이 함/

첫째, 부부상호작용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부인과 남편의 개인적 변화와 더불어 부부관계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다. 각방을 쓰던 남편과 부인이 한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고, 함께 쇼핑을 다니고 대화를 많이 하려고 노력한 결과 부부의 대화양도 증가하였다. 부부싸움은 줄어들었고, 부부가 싸움이 생길 것 같으면 서로 싸우지 말자고 이야기를 하였다.

둘째, 가족의 소속감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부인은 엄마로서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남편에 대한 고마움도 표현하였다. 갈등이 심했던 부인과 의붓딸의 대화도 많아지고, 남편이 자녀들 앞에서 부인에 대한 연민을 표현하였다. 조부모를 방문하는 것도 주 1회에서 월 1회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셋째, 형체하위체계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의붓딸은 사이가 나빴던 의부남동생과 대화도 많이 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동생같은 느낌이 든다고 표현하였다. 또한 의붓형제들끼리의 대화가 늘어났다.

7.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재혼한 부인의 음주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재혼가족을 MRI의 의사소통모델을 활용한 가족치료사례를 분석하였고, 상담은 총 9회기로 구성되었다. 치료자는 부부체계를 중심으로 가족의 상호작용을 변화시키는데 초점을 두었으며, 연구자들은 치료과정에서 나타나는 재혼가족의 상호작용과 특수성 그리고 치료적 개입에 대하여 분석을 하였다. 연구자들은 의뢰사유가 부인의 음주문제로 인해서 파생되는 가족갈등이었으나 이를 단순히 개인의 음주문제로 보기보다는 가족이 경험하고 있는 역기능적 상호작용과 재혼가족의 특수성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부인의 음주행동은 부인과 가족구성원들의 상호작용 및 관계수준에서 발생하는 권력의 역동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었다. 즉, 부인의 음주행동은 Madanes(1981)가 제시하는 가족 내의 세대 간 경계선과 권력의 불평등관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하나의 증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본 사례의 가족 안에는 두 종류의 위계가 존재하였다. 하나는 남편이 강한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부인이 종속적인 입장에 놓이게 되는 것이었고, 남편이 부인의 증상을 개선시키려고 할수록 남편과 부인의 관계는 종속적 관계로 굳어지는 것이었다. 또 다른 하나는 남편이 부인을 개선시키려고 하지만 부인은 자신의 증상을 강화시킴으로써 남편의 노력을 실패로 돌아가게 하고 본인의 증상을 유지함으로써 남편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두 가지 불균형적인 위계가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은 부부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도하였던 방식들에 있었다. 특히 가족이 사용하는 의사소통방식들은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본 사례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인의 음주행동과 가족의 반응은 순환적 인과성을 가지고 상호작용 하면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이 부인에게 제공하는 폭력·비난·통제, 의붓자녀들이 엄마로서 부인의 권위를 무시하는 태도, 시모의 간섭은 부인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촉발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부인의 음주시 분노표출, 거친 언어와 욕설사용, 행동에 대한 통제력 상실, 지속적인 음주행동, 의붓자녀들에 대한 차별적 태도는 촉발요인과 연쇄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부인의 대항요인이었다. 그리고 혈연-비혈연의 가족관계 수준에서 발생하는 정서적 유대감 및 거리감으로 인해서 부인이 경험하는 피해의식은 음주행동의 관계요인이 되었다. 또한 부인의 증상으로 인하여 가족들이 경험하는 것은 경직된 가족분위기, 가족성원들의 사회적 체면 손상, 가족 성원들 간의 일시적 동맹, 형제관계의 약화 등이었다. 재혼가족의 갈등은 가족성원들의 역기능적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지속되고 있었다.

둘째, 재혼가족이라는 특수성도 가족갈등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재혼가족이라서 가지는 특수성은

가족의 결합을 어렵게 하는 암묵적 상호작용과 결합을 강화시키려는 통제적 상호작용으로 구분되었다. 가족생활에서 눈치보기(임), 차별(감), 오해(편견), 속마음을 숨김 등이 혈연-비혈연의 관계특성에 따라 암묵적으로 교류되고 있었다. 남편은 암묵적 상호작용에 대한 반작용으로 엄격한 규칙, 의도적 일체성 강조, 정체성 추구, 가부장적 권위행사 등의 통제적 상호작용을 시도하여 가족의 응집력을 강화시키려고 하였다.

셋째, 재혼가족에 대한 가족치료적 개입관점은 부부체계강화, 의사소통방식의 변화, 가족규칙의 완화, 상호 차이점의 수용 등이었다. 치료자는 부부체계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부인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부부갈등의 상호책임론을 제기하였으며, 부부간 긍정적인 측면도 강조하였다. 치료자는 의사소통방식의 변화를 위하여 문제해결에 비효과적인 의사소통방식을 포기하고, 언어적 의사소통과 듣는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치료자는 엄격한 가족규칙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남편에 의한 부인과 자녀의 통제를 완화시키고, 남편의 가부장적 사고방식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그리고 치료자는 가족성원들이 서로의 차이점을 수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자의 입장을 이해시켰고, 가족성원들에게 재혼가족의 특성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치료자의 개입으로 인하여 부인의 변화, 남편의 변화, 가족관계의 변화가 일어났다. 특히 부부의 상호작용 증가, 가족의 소속감, 형제하위체계의 변화와 같은 가족관계의 변화는 남편에 의한 통제적 상호작용의 결과가 아니라 치료적 과정에서 발생한 자연스러운 변화로 생각할 수 있다.

2) 제언

본 사례연구의 결과에 근거해서 재혼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적 실천 및 개입의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부인의 음주행동을 알코올중독이라는 표면적 증상이나 부인 개인의 심리적 문제로 보기보다는, 가족 체계 안에서 발생하는 역기능적 상호작용의 한 부분이며,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결과인 동시에 그 영향을 만드는 원인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즉, 부인의 증상을 가족체계의 상호작용 안에서 발생하는 순환적 인과관계로 이해할 수 있었다. 따라서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개인 및 가족에게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현상을 둘러싼 체계들의 순환론적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부인의 문제행동은 부부하위체계의 불균형적인 권력구조에서 발생하였고, 가족치료의 효과적인 개입도 부부하위체계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사례 속의 가족은 재혼을 통해서 형성된 지 4년밖에 안 되었고, 청소년기의 자녀들이 포함되었으며, 공유역사가 짧은 혈연-비혈연관계로 인해서 상호작용이 복잡하였다. 부부하위체계는 자녀들의 혈연-비혈연관계와 맞물려서 삼각관계를 이루거나 다른 하위체계에 대한 명확한 경계선을 만들지 못하였기 때문에 불안정한 상태였다. 치료자가 부부체계의 강화에 우선적인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였기 때문에 부인의 음주행동은 감소되었고, 가족관계는 부부체계를 중심으로 안정을 이룰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관계의 강화가 재혼가족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Visher 등(1997)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재혼가족에

개입할 때에는 부부하위체계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재혼가족에서 통합은 매우 어려운 부분이다. 이것은 초혼가족의 발달과정과 다르며, 통합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가족구성원간의 친밀감의 정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치료자에게도 상담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재혼가족의 부모들은 지나치게 빨리 친가족과 같은 관계를 형성하고자 의도적으로 응집력을 강조하는데,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가족관계를 저해하는 위험요소가 될 수도 있다. 재혼가족에게서는 응집성뿐만 아니라 서로의 차이점을 문제로만 보기보다는 다양성으로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수용하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 따라서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제공하는 재혼가족을 위한 교육 및 준비프로그램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유연성을 키우는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사례의 가족은 부인의 알코올중독의 문제뿐만 아니라 남편의 가족통제와 가정폭력, 부모에 대한 사춘기 청소년들의 반항과 같은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라도 피드백고리의 개념으로 단순화시켜서 본다면 개입방법도 단순해질 수 있다고 본다. 사회복지 실천가는 복잡한 문제의 현상보다는 문제를 유지시키는 피드백고리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문제해결을 위해서 사용하는 비효과적인 방법들을 포기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도록 하는 것이 변화의 지름길이라고 본다.

다섯째, 본 연구는 하나의 가족치료사례를 분석한 사례연구이므로 전체의 재혼가족을 대상으로 일반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치료의 목표가 재혼가족을 친가족과 같은 상태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부체계의 변화를 통하여 가족체계의 적응을 추구하는데 있었기 때문에 다른 모델의 관점과 상이할 수도 있다. 따라서 향후에 다양한 관점과 모델들을 적용한 재혼가족의 치료사례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경향신문. 2008년 2월 13일자 15면.

김연옥. 2002. “재혼가정 내 모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예측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49: 75-82.

김연옥. 2004. “재혼가정의 가족기능향상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시론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6(2): 215-235.

김유숙. 2002. 『가족치료』 서울: 학지사.

김유숙. 2006. “재혼가정에 대한 단기가족놀이치료의 적용사례”.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1(3): 311-325.

김효순. 2006. “재혼가족의 양육태도 유형이 가족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7: 57-87.

김효순. 2006. “재혼가족청소년 자녀의 역할긴장이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3(2): 187-213.

김효순 · 엄명용. 2007. “청소년자녀가 있는 재혼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1: 75-102.

나임순. 2002. “노인의 재혼욕구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박충선 · 배나래. 2005. “노년기 재혼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0(2): 115-132.
배진희. 2004. “노년기 재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복지연구』 25(가을호): 211-232.
서병숙 · 김은진. 1996. “홀로된 여성노인의 재혼태도연구”. 『한국노년학』 16(2): 53-66.
서병숙 · 김혜경. 1998. “노인의 재혼에 대한 기혼자녀의 지각”. 『한국노년학』 18(1): 91-106.
석정희. 2004. “노년기 재혼부부의 생활적응실태에 관한 질적연구”. 계명대학교 여성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미간행).
유영주. 2007. 『새로운 가족학』 서울: 신정.
임춘희. 1996. “재혼가정 내 계모의 스트레스와 적응에 관한 질적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미간행).
임춘희. 1997. “재혼한 남자노인의 재혼가족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7(2): 119-138.
임춘희. 2006. “재혼가정 청소년의 적응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가족관계 인식과 교육요구도를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15(5): 743-760.
임춘희 · 박경란. 1997. “노년기의 재혼가족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경험적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183-200.
임춘희 · 정옥본. 1997. “초혼계모의 재혼가족생활 스트레스와 적응에 대한 경험적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5): 73-102.
정현숙 · 유계숙 (2003). 『가족관계』 서울: 신정.
정현숙 · 유계숙 · 임춘희 · 전춘애 · 천혜정. 2000. “재혼가족에 대한 실태 및 재혼생활의 질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8(4): 1-19.
최영아 · 이정덕. 2000. “사별 및 이혼한 노인의 재혼에 관한 연구 II”. 『한국가족복지학』 5(2): 87-108.
통계청. 2007. http://www.nso.go.k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08. “동거 1년 미만 부부 상담통계”. http://www.lawhome.or.kr/law1/index.asp.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08.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07년 상담통계”.http://www.lawhome.or.kr/law1/index.asp.
현은민. 1998. “재혼가족발달을 위한 가족 FIRO모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3): 146-154.
현은민. 2002. “재혼준비교육 프로그램 모형 개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7(3): 153-172.
Carter, B, and M. McGoldrick. 1989. The Changing Family Life Cycle: A Framework for Family Therapy. Boston: Allyn and Bacon.
Cartwright, C. 2003. “Therapists’ Perceptions of Bioparent-child Relationships in Stepfamilies: What Hurts? What Helps?”.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38(3): 147-166.
Coleman, M., L. Ganong, and M. Fine. 2002. “Reinvestigating Remarriage: Another Decade of Progr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ies 62: 1288-1307.
Dattilio, F. M. and A. E. Jongsma. 2000. The Family Therapy Treatment Planner. NJ: John Wiley & Sons.
Demo, F. H. and A. C. Acock. 1996. “Singlehood, Marriage, and Remarriage: The Effect of Family Structure and Family Relationships on Mothers Well__being” Journal of Family Issues, 17(3): 388-407.
Furstenberg, F. F., and G. B. Spanier. 1984. “The Risk of Dissolution in Remarrage: An Examination of Cherlin’s Hypothesis of Incomplete Instituionalization”. Family Relations 33: 433-441.
Ganong, H. L., and M. Coleman. 1989. “Effects of Remarrage on Children : A Review of the

Empirical Literature. Family Relations 33: 389-406.
Ganong, H. L., and M. Coleman. 1994. Remarried Family Relationships. New York: SAGE Publications.
Goldenberg, I., and H. Goldenberg. 2001. Family Therapy: An Overview. Pacific Group, CA: Brooks/Cole.
Hanna, S. L., and P. K. Knaub. 1984. "Cohabitation before Remarrige : Its Relationship to Family Strengths". Alternative Lifestyles 4: 507-522.
Madanes, C. 1981. Strategic Family Therapy. San Francisco: Jossey-Bass.
Miles, M. B., and A. M. Huberman. 1994. Qualitative Data Analysi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
Minuchin. S. 1984. Family Kaleidoscop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Nichols, M. P., and R. C. Schwartz. 2008. Family Therapy : Concepts and Methods. Allyn & Bacon.
Parazzoli, M. S., L. Boscolo, G. Cecchin, and G. Prata. 1978. Paradox and Counterparadox. New York: Jason Aronson.
Pasley, K., L. Rhoden, E. B. Visher, and J. S. Visher. 1996. "Successful Stepfamily Therapy: Clients' Perspective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22(3): 343-357.
Shalay, N., and K. Brownlee. 2007. "Narrative Family Therapy with Blended Families". Journal of Family Psychotherapy 18(2): 17-30.
Visher, E. B., J. S. Visher. 1990. "Dynamics Successful Stepfamilies".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14(1): 3-12.
Visher, E. B., and J. S. Visher. 1991. How to Win as a Stepfamily. New York: Taylor and Francis Book.
Visher, E. B., and J. S. Visher. 1996. Therapy with Stepfamilies. New York: Brunner/Mazel
Visher, E. B., J. S. Visher, and K. Pasley. 1997. "Stepfamily Therapy from the Client's Perspective". Marriage and Family Review 26: 191-213.
Watzlawick, P., J. H. Beavin, and D. D. Jackson. 1967. Pragmatics of Human Communication. New York : Norton & Company.
Watzlawick, P., J. Weakland, R. Fisch. 1974. Change: Principles of Problem Formation and Problem Resolution. New York: Norton & Company.

A Case Study on the Family Therapy to Remarried Wife with Alcoholic Problem

Park, Tai-Young
(Soongsil University)
Kim, Tae-Han
(Doctoral Student, Soongsil University)
Kim, Hye Sun
(Doctoral Student, Soongsil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roblems of remarried wife with alcoholic problem. Specifically, this study regarded the wife's alcoholic problem as the problems of dysfunctional interaction among family members rather than an individual problem.

The study had three purposes as follows. First, what were the interactions sustaining the conflict of remarried family? Second, what were the characteristics of remarried family relating to family conflict? Third, what were the interventions of family therapy to resolve the conflicts of remarried family?

The total family counseling was 9 sessions, which included individual, couple, and family counseling. The study used constant comparative analysis by using open coding method to find the factors relating interactions sustaining the conflict of remarried family, the characteristics of remarried family relating to family conflict, and the interventions of family therapy to resolve the conflicts of remarried family. Also, the study used Miles and Huberman's matrix and graphical network display to show the interaction of family members.

The study found intriguing factors, counteracting factors, relationship level, and relational elements to wife's alcoholic problems among family members. The study revealed husband's rigid family rules, husband's execution of patriarchal authority, husband's pursuit of family identity, and husband's emphasis of union among family members as the characteristics of remarried family. On the other hand, the study found the reinforcement of spousal subsystem, the pursuit of change in communication pattern between husband and wife, the amelioration of

rigid family rules, and the acceptance of differences among family members as the intervention of family therapy to resolve the conflicts of remarried family.

Key words: alcoholic problem, dysfunctional interaction, family conflict, family therapy, stepfamily.

[논문 접수일 : 2008년 12월 14일 게재 확정일 : 2009년 1월 31일]